

올해 전국체전 고등부 경기만 열린다

코로나19 '직격탄'...사상 초유 '축소대회'로

내달 8일부터 7일간 47개 종목서 열린
참가자 수 2019년 대회 10% 수준 급감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고교공사' 김제덕(17·경북일고)의 '파이팅 응원'을 들을 수 있지만,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20·광주여대)의 '하트 세리머니'는 볼 수 없다.

올해 전국체전이 고등부만 출전하는 '축소 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100년 역사의 전국체전도 그 규모가 크

게 작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1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체육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02회 전국체전은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장애인 체전 기간은 내달 20~25일 6일간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등 1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열린다.

하지만 규모는 매우 작아진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가했는데 고등부로 제한된 올해는 2019년 대회 참가자 수의 10% 수준만 출전할 전망이다.

전국체전은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대회다.

1920년 서울 배재고보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시초로, 14회 대회까지 종목별로 대회가 진행되다가 15회(1934년) 처음으로 종합 체육대회의 면모를 갖췄다.

일제 강점기인 19회부터 25회까지는 대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1945년 10월 서울에서 자유 해방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당시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는 축제로 전국체전이 열렸으나 1950년 전쟁으로 다시 중단됐고, 1951년부터 100회 대회가 열린 2019년 서울 대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렸

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01회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문체부와 2020년 전국체전 개최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비롯한 5개 지자체 대표들은 지난해 전국체전 1년 순연을 결정하면서 2020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된 경상북도에서 2021년 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회 공식명은 '102회 전국체육대회'로 정했다.

전국체전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체육계 인사들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전국체전 정상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경계했고, 결국 대학·일반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임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 경기만 치르는 방식으로 전국체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전북에 발목

안방맞대결 1대2 석패



프로축구 광주FC가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 상대로 홈에서 밀어 붙였지만,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

광주는 지난 2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 하나원규 K리그1 2021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석패했다.

최근 5경기 무패(3승 2무)행진에 제동이 걸린 광주는 10위(승점 30점)를 유지했다.

광주는 엄원상을 중심으로 빠르고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전북을 압박했다. 강한 수비로 전북의 타이밍까지 뺏았다.

결국 선제골 기회를 잡는 듯 했다. 전반 15분 상대 수비수의 백패스가 자책골로 이어지는 듯 했지만, 전북 골키퍼 송병근이 간신히 걷어냈다. 엄원상이 페널티 지역에서 재빨리 잡아 슈팅 시도 순간 전북 수비수 이용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 킥을 얻어냈다. 헤이스가 키커로 나섰지만, 그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이후 광주는 선제골을 위해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했으나 전반을 0-0으로 마쳤다.

후반전 선제골을 노렸던 광주는 후반 14분 백승호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다. 실점 이후 광주는 후반 14분 엄지성, 20분 허을과 여봉훈, 김봉진을 투입하며 승부를 걸었다.

광주가 동점에 성공했다. 엄원상이 후반 34분 역습에 의한 크로스로 전북 수비수 구자룡의 자책골을 이끌어 내며 분위기를 뒤집었다.

이후 광주는 기세를 타며 역전을 노렸지만, 추가시간 송민규에게 실점을 내주며 아쉽게 1-2로 패했다.

/박희중 기자

안산, 세계선수권 3관왕 '시동'



혼성전 나서는 안산과 김우진.

<대한양궁협회 인스타그램 캡처 제공>

랭킹라운드 1위 통과...남자부 1위 김우진과 혼성전 출전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혼성 단체전(혼성전)에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이 한국 대표로 나선다.

22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이틀째 리커브 여자 랭킹라운드에서 2020 도쿄올림픽 3관왕인 안산이 646점을 쏘 1위에 올랐다.

남자 랭킹라운드에서는 김우진이 677점으로 선두에 자리해 안산과 함께 혼성전에 나서게 됐다.

한국 양궁은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랭킹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남녀 선수에게 이번 세계선수권 혼성전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안산은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 '막내' 김제덕(경북일고)과 함께 혼성전 금메달을 따내 3관왕의 첫 단추를 끼운 바 있다.

남자부에서 김제덕은 6위, '만형' 오진혁(현대제철)은 7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장민희(642점·인천대)가 3위, 강재영(640점·현대모비스)이 4위를 기록했다. 안산은 24일 혼성전과 단체전, 26일 개인전에 출전 3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안산은 지난 20일 세계양궁연맹(WA)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한 달 전 끝난 올림픽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말했다.

안산은 도쿄올림픽에서 김제덕(경북일고)과 함께 혼성단체전 금메달을 따내고 여자 대표팀 선배들과 함께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개인전에서도 우승해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안산은 "개인전에서 (강)재영(현대모비스) 언니가 떨어지고 나서 내 4강

경기가 있었는데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은 경기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언니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했다"고 3번째 금메달 도전 과정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특별하다기보다 운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은 "도쿄 한가운데서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태극기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묘했다. 세 번째로 애국가 들을 때엔 살짝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안산은 세계선수권은 물론 내년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두 대회 모두 안산에게는 생애 첫 도전이다.

안산은 "어린 나이여서 지금 안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걸어보고 싶다." /연합뉴스

송가인, 챔스필드서 필승 시구

KIA, 26일 SSG랜더스戰 '보해양조의 날'
자영업자·의료진 초청 '코로나 극복' 기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호남 지역 대표 주조업체인 '보해양조'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기원' 행사를 연다.

KIA는 오는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랜더스와의 경기에서 '보해양조 날' 브랜드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힘겨워 하는 자영업자와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해양조는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자영업자와 의료진 등 광주·전남 지역민을 초청해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또한 보해 '잎새주' 모델인 송가인 씨가 승리기원 시구자로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올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희중 기자



오는 26일 SSG랜더스와의 경기에 승리기원 시구자로 나서는 송가인. <보해양조 제공>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20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오창록, 한라장사 '꽃가마'

<영암군민속씨름단>

추석 씨름대회 우승, '올시즌 3관왕' 통산 9번째 장사

오창록(27·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105kg 이하) 타이틀을 차지했다.

오창록은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이국희(증평군청)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올해 2월 설날 대회와 4월 해남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오창록은 이로써 올 시즌 3관왕을 달성하며 통산 9번째 장사 꽃가마를 탔다.

추석 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각각 이광재(구미시청)와 박정진(광주시청)을 2-0으로 제압한 그는 준결승에서 남원택(영월군청)까지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올해 실업 무대에 데뷔한 이국희가 결승 상대로 나섰으나, 오창록의 기세가 매서웠다. 첫판 들배지기로 한 점을 먼저 따낸 오창록은 두 번째 판에서 상대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어진 세 번째 판에서 안다리로, 네 번째 판에서는 들배지기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최경주, 챔피언스 투어 첫 우승 '다음 기회에'

2차 연장 끝 아쉬운 준우승

'코리안 탱크' 최경주(51)가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총상금 18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최경주는 지난 20일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1개로 1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198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스티브 플레시(미국)와 함께 연장전을 치렀다.

18번 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에서는 1차 연장에서 플레시가 탈락했고, 최경주는 약 3m 버디 퍼트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 클라크와 함께 2차 연장에 돌입했다.

같은 홀에서 이어진 2차 연장에서는 클라크가 버디를 잡아 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플레시와 함께 공동 2위다.

2002년 한국 선수의 PGA 정규 투어 첫 승을 따냈던 최경주는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올해 한국인 첫 PGA 챔피언스투어 우승에도 도전했으나 1차 연장에서 살짝 빗나간 버디 퍼트가 아쉬움을 남겼다.

최경주는 "2차 연장에서 티샷이 너무



최경주가 대회 마지막 날 5번 홀에서 자신의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를 맞아 우승을 내줬다"며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고, 즐겁게 대회를 마쳤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3억1천만원), 공동 2위인 최경주와 플레시에게는 14만4천 달러씩 돌아간다.

지난해 8월부터 만 50세 이상이 활약하는 챔피언스투어에 입문한 최경주는 이번 대회 준우승이 시니어 무대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

고진영, 내친김에 2연승 가자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 기세 몰아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 출전

1개월 반가량의 휴식기 이후 나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6)이 기세를 몰아 2연승을 정조준한다.

고진영은 24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주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7월 VOA 클래식에서 이어 시즌 2승이자 LPGA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한 뒤 이어지는 대회다.

지난달 초 열린 도쿄올림픽 이후 국

내에 머물며 휴식과 개인 훈련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고진영은 약 한 달 만에 공식 대회에 나와 곧바로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뽐냈다.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이어 이번 대회에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출전하지 않아 고진영은 격차를 좁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고진영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가까이 세계랭킹 1위를 달리다가 코다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현재는 2위다.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으로 코다

와의 랭킹 포인트 격차를 1.7점으로 줄였고,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아칸소 챔피언십이 한국 선수들과 유독 공감이 잘 맞는 대회라는 점은 기대감을 키운다.

2008년 이선화(35)를 시작으로 2009년 신지애(33), 2013년 박인비, 2015년 최나연(34), 2017년 유소연(31), 2019년 박성현(28)이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 있다.

한국인 역대 챔피언 중엔 박성현, 유



소연, 최나연이 올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김세영(28), 이정은(25), 지은희(35), 전인지(27) 등도 나선다.

/연합뉴스